

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 : 일반부문

국회의사당의 상징성에 따른 건축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제언을 중심으로-

A Study on Architectural Planning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the Symbolism of National Assembly Building - Focusing on Proposals for the Planning of the Sejong National Assembly Building -

○장 두 석* 김 경 순**
Jang DuSuk, Kim, KyoungSoon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ymbolic and spatial planning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a representative political building. By comparing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ose of the United States, Germany, Brazil, and Scotland, it examines how each country's political culture, historical context, and urban environment are reflected architecturall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beyond its role as a legislative body, architecturally embodies democratic ideals, national narratives, and a commitment to civic participation. Furthermore, it demonstrates that the balance of symbolism, openness, functionality, and identity is a core spatial strategy in political architecture.

키워드 : 국회의사당, 정치 건축, 상징성, 개방성, 정체성

Keywords : Parliament, Political Architecture, Symbolism, Openness, Identity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국회의사당은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 행정의 중심 공간일 뿐 아니라, 한 국가의 이념과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공건축물이다. 국회의사당은 단순히 기능적 프로그램에 의해 구성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정치의 관계, 권력의 구조, 그리고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는 상징적 건축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 민주주의의 성숙과 함께 국회의사당은 ‘권위의 상징’에서 ‘열린 정치’와 ‘시민 참여’의 공간으로 재조명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 구성, 외형, 접근성 등 건축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여의도 시대를 마감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준비하며 새로운 국회 청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건축적 한계와 논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념을 담아낼 공간을 창조할 절호의 기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건립 과정에서 겪었던 논란과 그 건축적 상징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또한 해외 국회의사당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국회의사당의 상징성이 건축계획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나타나는 건축계획적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사당이 단순한 기능 공간을 넘어 정치, 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축적 매체로 작용함을 이해하고자 하며,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이 나아가야 할 건축계획적 특성을 제언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주요 국회의사당 사례를 선정하여 그 상징성과 건축계획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내 대한민국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례분석을 통해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되돌아보고, 국외 사례로는 미국, 독일, 브라질, 스코틀랜드 총 4개국의 국회의사당을 선정하였다. 이들 사례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 정치 체계, 건축적 접근 방식 등에서 차별점을 가지며, 각 사례의 건축계획 요소인 입지 및 배치, 외형, 공간 구성 및 동선과 상징성 표현 방식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도면 및 이미지 분석, 공간적 구성 요소의 비교, 상징성의 표현 방식 분석 등을 활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사당의 건축계획 특성에 대한 공통적 경향과 차별적 전략을 도출한다.

2. 이론적 고찰

2.1 국회의사당의 개념과 기능

*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과정

**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Graduate School of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Hongik University, kyoungsk@hongik.ac.kr)

국회의사당은 국가 입법기관이 위치한 상징적 중심지이자 정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전통적으로 국회의사당은 국민의 대표가 모여 국가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로 인해 그 공간 구성과 외형은 정치 권력의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다. 현대의 국회의사당은 단순한 회의실 중심의 기능적 배치를 넘어, 행정, 정보, 전시, 방문자 안내 등의 복합기능을 포함하는 복합 공공건축물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사당은 국민과 권력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상징물이 되기도 하며, 정치 체계에 따라 폐쇄적 또는 개방적인 성격을 반영한다. 따라서 국회의사당의 공간 구성과 외형은 해당 국가의 정치 이념, 제도적 구조, 역사적 배경을 건축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이 된다.

2.2 건축에서의 상징성과 의미

건축에서 ‘상징성’은 공간과 형태를 통해 보이지 않는 가치, 개념, 이념 등을 표현하는 기호적 역할을 의미한다. 상징은 특정한 형상, 재료, 배치 등을 통해 수용자에게 의미를 전달하며, 이는 기능과는 구별되는 또 하나의 건축적 층위로 이해된다. 특히, 건축적 상징성은 새로운 시대를 반영하기 위한 모더니즘과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려는 역사주의 사이의 갈등을 통해 발현되기도 한다.¹⁾ 국회의사당의 경우, 그 상징성은 주로 다음과 같은 건축계획적 특성들을 통해 구현된다.

-입지 및 배치적 상징: 축선 구성, 주변 도시 맥락과의 관계, 입지 조건 등 공간의 위치와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상징성. 이는 국가의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반영한다.

-외형적 상징: 돔, 첨탑, 기둥, 파사드, 건축 양식 등 건물 외관의 형태와 재료에서 드러나는 상징성. 이는 권위, 질서, 또는 탈권위적 이념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

-공간 구성 및 동선적 상징: 개방성/폐쇄성, 회의실 배치, 시민 접근성, 동선 체계 등 건물 내부 공간의 구조와 이동 경로에서 나타나는 상징성. 이는 국민과 권력의 관계, 그리고 정치적 소통 방식을 물리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상징성은 정치적 정당성과 국가 정체성 형성에 있어 중요한 건축적 도구로 작용하며, 각 국가의 문화적 배경이 종합적으로 투영된다.

3.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 ‘권위’의 건축과 ‘조작된’상징

3.1. 건설 역사와 시대적 배경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은 임시 청사를 전전하던 국회에 독립적 위상을 부여하고 민주주의를 상징하기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건설되었다. 1975년 완공된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단일 의사당 건물로는 동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당시 한국의 경제 성장과 국력 신장을 과시하는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림1. 여의도 국회의사당 1차 기본설계안

3.2. 건축적 상징과 그 비판적 진실

국회의사당은 외형적 권위를 넘어, 민주주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공식적인 상징들을 내세운다. 건물 외곽을 둘러싼 24개의 거대한 기둥은 24절기 내내 국정에 정진하라는 의미를, 전면의 8개 기둥은 전국 8도의 민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상징들은 건립 과정의 비판적 사실들을 은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건물의 핵심 상징인 거대한 돔이다. 초기 설계안에는 돔이 없었으며 건물은 5층 규모였으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옛 중앙청사(5층)보다 한층 높게 지으라”고 지시하면서 6층으로 변경되었고, 건축적 비례가 맞지 않는 상부에 1,000톤에 달하는 돔이 추가되었다. 서구의 의사당과 달리, 이 돔은 본회의장이 아닌 중앙 로비(로텐더홀) 위에 위치하여 본래의 기능적 상징성을 잃고 오직 ‘권위의 과시’를 위한 장식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권력의 개입에 대한 실망으로 당시 설계에 참여했던 당대의 저명한 건축가 4명은 자신의 공식 작품 목록에서 국회의사당을 제외하기도 했다. 이는 국회의사당이 국가적 상징과 한국적 전통을 둘러싼 모더니즘과 역사주의의 갈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4. 해외 국회의사당 사례를 통한 상징성 분석

4.1. 미국 국회의사당

-입지 및 배치: 워싱턴 D.C.의 동쪽 언덕, ‘캐피톨 힐(Capitol Hill)’에 위치하고 있다. 이 명칭은 고대 로마의 정치 중심지였던 ‘캄피톨리움 언덕(Capitolium Hill)’에서 유래한 것으로, 신생 공화국이 고대 로마 공화정의 이상을 계승하려는 의지를 상징한다. 건물의 좌우에 상원과 하원이 대칭적으로 배치된 형태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건축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외형: 백색을 기반으로 한 신고전주의 양식은 미국이 추구하는 이성, 질서, 우아함을 시각화한다. 특히 중앙의 거대한 돔은 단순한 건축적 요소가 아니다. 남북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돔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결정은 돔을 ‘연방의 영속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정치적 상징물로 변모시켰다. 돔 꼭대기에는 ‘자유 여신상(Statue of Freedom)’이 세워져 이러한 국가적 이상을 완성했다.

공간 구성 및 동선: 돔 아래의 ‘로툰다(Rotunda)’ 홀은 방문객 동선의 중심부이며, 천장화 ‘워싱턴의 신격화

¹⁾ 김지홍, 국회의사당 설계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사주의와 모더니즘, 대한건축학회 2023

(Apotheosis of Washington)’와 같은 장식들을 통해 국가의 신화적 서사와 영웅주의를 주입한다. 이러한 웅장한 내부 공간은 방문객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고 국가의 권위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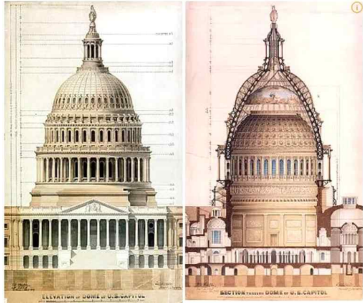


그림2. 미국 국회의사당 돔 입단면도

4.2. 독일 국회의사당

입지 및 배치: 베를린 중심부에 위치한 독일 국회의사당은 독일 제국, 나치, 그리고 분단과 통일이라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모두 담고 있는 곳이다.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는 외벽은 그대로 보존하고 내부를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레트로핏(Retrofit)' 방식을 통해 과거의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냈다.

외형: 가장 상징적인 요소는 중앙에 위치한 투명한 유리 돔이다. 과거 독일 제국의 권위를 과시하던 육중한 돔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개방성과 투명성을 상징하는 유리 돔을 세움으로써 권위주의에 대한 역사적 반성을 선언했다.

공간 구성 및 동선: 유리 돔 내부에 설치된 나선형 통로를 따라 올라가면 시민들은 아래의 본회의장을 직접 내려다볼 수 있다. 이는 '국민이 국회의원 위에 있다'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물리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시민들의 능동적인 감시와 참여를 유도하는 공간적 장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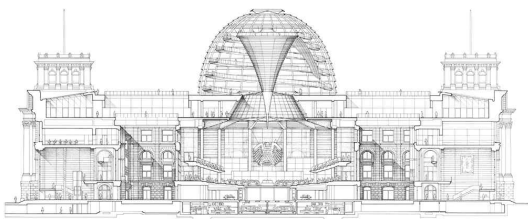


그림3. 독일 국회의사당 단면도

4.3. 브라질 국회의사당

입지 및 배치: 과거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의 역사적 맥락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한 새로운 국가 건설을 상징하는 계획 도시 '브라질리아'의 중심에 위치한다. 건축가 오스카 니마이어(Oscar Niemeyer)와 도시 계획가 루시우 코스타(Lúcio Costa)는 도시 공간 자체에 삼권분립 원칙을 투영하여, 국회의사당은 입법부의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건물로 자리 잡았다.

외형: 니마이어는 직선과 각을 거부하고 곡선과 기하학

적 형태를 활용한 모더니즘 건축을 선보였다. 상원(Senate)을 위한 오목한 그릇(접시) 모양의 돔과 하원(Chamber of Deputies)을 위한 볼록한 구 모양의 돔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하나의 결론으로 집중시키는 입법부의 역동성을 상징한다. 이 두 돔 사이의 쌍둥이 타워는 포르투갈어로 '인간'을 뜻하는 'Homem'의 첫 글자 'H'를 형상화하여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입법 정신을 직접적으로 선언한다.

공간 구성: 니마이어는 국회의사당의 지붕을 시민들을 위한 공공 광장으로 계획했다. 이는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려는 그의 철학을 보여주지만, 보안 문제로 인해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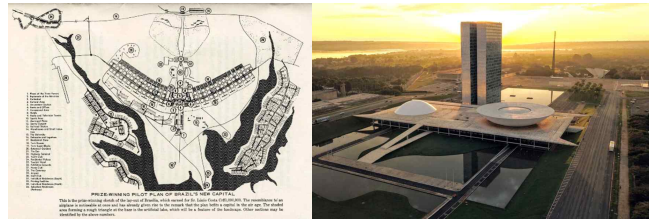


그림4. 브라질리아 마스터플랜 / 브라질 국회의사당 사진

4.4. 스코틀랜드 국회의사당

입지 및 배치: 이 건물은 에든버러의 고전적 구시가지와는 이질적인 '거대한 조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건축가 엔리크 미랄레스(Enric Miralles)는 건물이 주변의 홀리루드 공원, 아서스 시트 등 자연 경관의 경사면에서 '솟아나는' 듯한 유기적 형태를 지향했다. 권위적인 기반 없이 대지 레벨에서 바로 연결되는 입구는 권위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외형: 잎사귀, 나뭇잎, 보트 등 스코틀랜드의 자연적 요소들을 모티브로 활용하여 건물이 자연의 일부로 인식되도록 했다. 건물의 지붕은 주변의 울퉁불퉁한 언덕과 바위를 연상시키고, 내부에는 스코틀랜드산 화강암, 참나무 등이 사용되어 땅과의 물리적 연결성을 강화한다.

공간 구성 및 동선: 본회의장 아래에 공공 구역을 배치하여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건축적으로 형상화했다. 또한, 건물 외부 광장은 특정한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시민들이 스스로 그 의미를 정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불확정적 공간'의 개념을 구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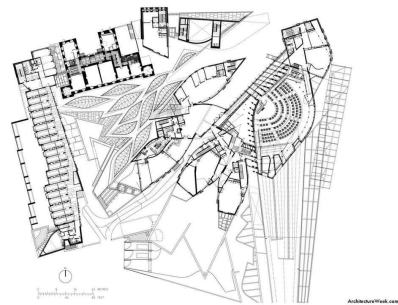


그림5. 스코틀랜드 국회의사당 평면도

4.5. 해외 사례분석 소결

미국 국회의사당은 '고전적 이상'과 '권위'의 구현을 위하여 돔, 기둥과 같은 신고전주의적 형태와 웅장한 공간을 통해 국민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고 국가적인 서사를 주입하는데 성공하였다. 독일은 '투명성'과 '역사적 반성'의 건축으로 권위주의의 상징이었던 돔을 '투명한 유리 돔'으로 재건축하여 시민이 의정 활동을 직접 감시하고 참여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국민주권과 개방성이라는 현대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재화한 건축적 반성의 사례이다. 브라질 국회의사당은 '미래'와 '예술적 실험'의 모더니즘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계획도시 브라질리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미래지향적인 국가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곡선과 기하학적 형태를 활용하여 '인간 중심'의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예술적 실험을 감행했다.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 국회의사당은 '자연'과 '탈권위'의 유기적 건축으로 권위와 기념비성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대지와 유기적으로 결합한 탈권위적 건축의 전형을 보여준다. 건물을 자연의 일부로 인식하게 하고, 시민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열린공간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표1. 국내외 국회의사당 사례비교표

지표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미국 국회 의사당	독일 국회 의사당	브라질 국회의사당	스코틀랜드 국회의사당
건립 연도	1975년	1800년	1999년	1964년	2004년
건축 가	김정수 외	윌리엄 손턴	노먼 포스터	오스카 니마이어	엔리크 미탈레스
건축 양식	신고전주의 요소/권위 주의적	신고전주의	레트로핏/ 하이테크	모더니즘	해체주의/ 유기적 건축
핵심 상징	거대한 돔(조작된 상징)	거대한 돔, 자유의 여신상	투명한 유리 돔	2개의 돔 (그릇, 구)	앞 보트, 유기적 지붕
상징 전달 방식	권력 과시, 사후적 의미 부여	고대 문화정 계승, 국가 영속성	역사적 반성, 투명성과 개방성	미래지향 적 형태, 인간 중심 철학	자연과의 융화, 탈권위적 민주주의
입지 절학	권위의 고립 (여의도 고지대)	고대 로마 '카피톨리 노 언덕' 계승	과거의 상처 (베를린 장벽)	과거로부터 의 독립 (계획 도시)	대지와의 유기적 융합
대중 과의 관계	폐쇄적, 접근성 낮음	웅장함으로 경외심 유발	개방성 참여 감시 유도	예술적 형태로 대중에게 다가감	친근함, 일상의 공간으로 유도

5. 국회 세종의사당 건축계획 제언

5.1. 상징성: '조작된 상징'에서 '내재된 상징'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조작된 상징'은 권위주의 시대의 건축적 비극을 보여준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단순한 외형적 과시를 위한 상징물을 지양해야 한다. 대신, 독일 국회의사당의 투명한 돔처럼 '국민 주권'과 '열린 정치'라는 현대 민주주의의 가치가 건물 자체의 기능과 공간 구성에 내재되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설계해야 한다.

5.2. 입지 및 배치: '권위의 고립'에서 '소통의 거점'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거대한 기단 위에 우뚝 솟아 '권위'를 상징하려 했다면, 세종의사당은 '소통'과 '개방성'을

지향해야 한다. 스코틀랜드 국회의사당처럼 대지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동선을 계획해야 한다. 브라질리아처럼 신도시의 중심에서 행정 기능 간의 긴밀한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 광장과 녹지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열린 장소'가 되어야 한다.

5.3. 공간 구성 및 동선: '폐쇄적 동선'에서 '참여적 동선'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민이 의정 활동을 단순히 관람하는 것을 넘어, 직접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독일 국회의사당의 유리 돔처럼, 본회의장과 의정 활동 공간 위를 시민들이 걸으며 관찰할 수 있는 '참여적 동선'을 계획하여 '국민이 국회의원보다 위에 있다'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건축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또한, 친근하고 유연한 공간 설계를 통해 국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딱딱한 권위의 장소'에서 '다양한 소통과 논의가 가능한 공공의 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6. 결론

국회 세종의사당은 대한민국 건축과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과거의 권위주의적 건축 양식에서 벗어나, 개방성, 투명성, 그리고 국민 참여라는 새로운 가치를 건축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세종의사당은 더 이상 물리적 권위나 외형적 위용을 과시하는 기념비가 되어서는 안된다. 대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건축계획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가 건물 자체에 '내재된 상징'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건물의 기능적 효율성을 넘어, 국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열린 국회'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아낼 위대한 유산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송기형,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건립배경과 건설과정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07
2. 김지홍, “국회의사당 설계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사주의와 모더니즘, 대한건축학회, 2023
3. 배형민, 우동선, 최원준, ”안영배 구슬집: 목천건축아카이브 한국현대건축의 기록2, 마티, 2013
4. HENRY HOPE REED, THE UNITED STATES CAPITOL, ITS ARCHITECTURE AND DECORATION, 2005
5. Susanne Fülöp, Architektonische Repräsentationsformen einer Demokratie -Der neue Reichstag von Norman Foster, 2011
6. Silva, Elcio Gomes, Documentação Estrutural do Palácio do Congresso Nacional em Brasília, 2015
7. https://en.wikipedia.org/wiki/Scottish_Parliament_Building